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미래인의 시각으로 본 도요타 사태

이영탁

이번 도요타 리콜 사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도요타 자동차의 품질관리와 위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품질관리가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 일어난 위기관리 실패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늑장 대응, 사실 부인, 뒤늦은 사과 등 위기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요타의 내부경영 잘못이 오늘의 도요타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는 관점이다. 과연 이러한 진단이 옳을까? 이 엄청난 도요타 사태가 회사 내부의 품질관리와 위기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었을까? 문제를 너무 좁게 보고 단순화시킨 단견적인 시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사가 그렇듯 어떤 문제든 과거적인 시각보다는 미래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과거적인 시각으로 오늘의 문제를 본다면 그 해법도 과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서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다. 미래적인 시각으로 최근에 일어난 도요타 사태를 보면 그 요체는 이러하다.

첫째,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이며 제조업이다. 따라서 자동차와 제조업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직도 자동차를 단순히 수송수단이나 제조업 제품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40%가 IT제품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송수단이 아니다. 이제 자동차는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이요, 휴식공간이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자동차를 '탈것'에서 '움직이는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이 탄생하고 있다. 차가 사무실이 되어 이메일을 처리할 뿐 아니라 금융거래를 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종래와 같이 자동차는 제조업이요, 제조업은 품질관리 위주로 경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품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옛날식이다. 일본과 같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어렵거든 차라리 제조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고 싶다.

둘째, 최근의 일본 경제를 살펴보라.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

그 와중에 과거에 잘 나가던 소니가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일본항공은 법정관리로 들어가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니와 일본항공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 경제사회가 총체적으로 숫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기획기사로 '일본의 악몽 : 재정파탄 시나리오'를 실은 바 있다. 이 기사는 20xx년 7월 19일 밤 9시 나카조에 유타카(가명)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일본 경제의 몰락 가능성이 90%이상 된다고 까지 경고했다.

셋째, 도요타 문제나 일본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도요타와 경쟁하는 우리 자동차 회사는 과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가. 우리 대기업이 매년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가격조건은 너무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청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소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최근 일본경제의 부진이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며칠 전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기 전 1980년대 후반의 일본경제와 너무도 닮았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일이 앞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어떤 확실한 준비라도 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동안 급속하게 떨어진 출산율을 감안하면 앞으로 2020년이 오기 전에 경제활동인구에 이어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로 접어드는데 말이다.

결론적으로 도요타 문제는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의 문제요, 일본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도요타 문제는 곧 우리 자동차업계의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곧 최근에 일어난 도요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미래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다.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전영식

여성 인생은 50부터…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이제 80세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폐경 이후 인생의 반을 보내게 되는 여성의 건강이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폐경이란 여성의 생식기인 난소가 노화돼 그 기능이 소실됨에 따라 월경이 영원히 없어짐을 말한다. 이러한 난소의 기능 손실은 여성호르몬의 결핍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일으킨다.

폐경기를 맞는 평균 연령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50세에서 52세로 잡는다. 흥미 있는 사실은 건강상태와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초경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는 달리 폐경 연령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흡연이 폐경을 약간 앞당긴다는 보고가 있으나 경구피임약 복용, 결혼이나 출산 여부,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은 폐경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갱년기 여성, 즉 40대 후반 여성이 폐경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는 증상들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난소의 노화로 월경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이다. 또한 에스트로겐이란 여성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혈관운동 현상인 안면홍조, 식은땀이 생겨난다.

정신, 신경과적인 증세로는 불면증·우울증·불안·기억력 감퇴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빈뇨·절박뇨·요실금 등의 비뇨기 증세, 호르몬 감소로 성욕감퇴, 질 분비물 감소로 성교통이 발생하며 관절통, 두통 등의 신체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폐경 여성의 약 90%가 상기 증상들을 경험하며 이중 안면홍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위에 열거한 폐경기 증상들이 초기에 쉽게 경험하는 증상들이라면 폐경이 지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증가와 골다공증 발생을 초래한다. 폐경이 된 후 심혈관 질환이나 골절 발병률의 증가는 노후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수명 단축을 야기하므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호르몬요법의 궁극적인 치료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이다. 보통 폐경 후 3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폐경 후 6년이 경과한 후 호르몬 투여시 골 손실은 막을 수 있으나 치료시점 이전까지의 골 소실은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폐경 직후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후의 골절 위험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하겠다.

이렇게 폐경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설명했지만, 호르몬요법의 부작용도 부각되고 특히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지 않거나 치료 도중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점은 폐경기 호르몬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가능성,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장점에 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호르몬 약물을 선택받는다면 더욱 더 활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엘병원 전영식 원장〉

기고

김승일

젊은 연주가들과 호남예술제

무등산에 산 벚꽃이 만발한 4월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난 16일 밤 광주출신 젊은 연주가들의 음악이 한껏 피워 올랐다.

모처럼 광주시향이 이 지역 출신의 젊은 연주가들에게 협연의 기회를 마련한 기획연주회 '헝가리 음악의 밤'에서의 일이었다.

신광여중, 광주예고 출신으로 이화여대와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 석사를 졸업한 플루트 최지혜, 동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거쳐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첼로의 장소희, 조대부고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한 바순의 김현진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연주는 싱그러웠다. 뜨거운 혈기로 동토를 뚫고 올라오는 4월의 생명력처럼 그들의 음악은 싱그러웠고 생생하였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견스런 기량으로 당당히 연주해 내는 모습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기에 주저함이 있을 수 없었다.

최지혜의 플루트는 어쩌면 그렇게 소리가 예쁘고 고운지 잘 정련 된 금 사슬처럼 빛나면서 나긋나긋하여 좋았지만 좀 연약한 것이 아쉬웠고 장소희의 첼로는 끓어오르는 목마름과 간절한 호소력으로 노래를 만들어가는 솜씨가 단연 돋보였으나 할퀴고 고함지르며 외치는 격정이 아쉬웠다.

김현진의 바순은 바순으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톤을 만들어내는지 놀라웠고 긴 호흡으로 고난도의 빠른 페시지를 질주하는 솜씨는 가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렇듯 그들은 그날 밤 우리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긴 하였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미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서 자기만족에 빠지는 유혹의 함정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더 높은 경지로 내달려야 할 과제가 지금부터라는 것도 그들은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가 초·중등학교 시절에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이나 또는 다른 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 고장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호남예술제에서 수상한 경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셈이었으며 결국 그들이 연주자의 길로 매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5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호남예술제는 그동안 이 고장 어린 새싹들에게 일찌감치 예술가의 희망과 꿈을 키워주었던 셈이고 오늘날 최고 수준의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재원들 거의 모두가 다 그러한 결실들이고 보면 반세기를 걸어온 이 고장의 전통 깊은 호남예술제에 대한 공로도 지금쯤에 와서는 당연히 평가되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광주시향이 기획한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협연 연주회는 매우 뜻있는 일로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대 명예교수〉

사설

남해안 선벨트사업 균형개발 기대한다

남해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선벨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로 집중 개발된다.

권역별·테마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에는 해양레포츠, 테마섬, 크루즈 등 관타지 아일랜드가 조성된다. 진도~진해~거제는 이순신 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해 '해상영웅벨트'로, 해남~진도~통영은 '남도문화탐방벨트' 등으로 개발된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되고 해안선과 섬을 잇는 77번 국도를 확충해 목포~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단축된다.

선벨트 사업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 2의 경제 축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등 만만치 않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어서 전남보다 사업여건이 월등히 좋은 부산과 경남지역으로 국내외 자본이 쏠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발전과 산업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먼저 추진돼 지역별 불균형 심화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남중권(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 중부권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

전남 남해안은 갯벌과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선벨트 사업을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형사고 부르는 형식적인 음주운항 단속

19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는 음주로 인한 운항 부주의 때문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충돌 직후 어선 선원 10명 중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음주를 한 어선의 갑판장이 선장을 대신해 조타기를 잡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해상 음주운항 처벌 대상인 0.099%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선장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음주운항과 선장의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부른 것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어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라야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포구에서 입·출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이 고작이다. 또한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뚜렷한 목표없이 지그재그 운항을 하는 선박을 골라 음주측정을 한다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야간 음주운항 단속이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올 들어 목포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 및 사고 건수는 모두 7건이며, 여수해경 관내 역시 7건에 이른다. 4개월도 안돼 14건이 발생했으니 지난 한해 34건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어선에서의 음주가 일반화돼 있는데다 형식적인 단속과 바다에서의 단속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음주운행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출항시 주류 반입을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버블제트

어린 시절 비누방울 놀이를 해본 이들은 안다. 비눗물에 적신 고리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동그란 유혹을. 그러나 방울(버블·Bubble)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무중력 공간에서 유영하는 것만 같았던 아늑함도 갑자기 사라진다.

경제에서도 버블은 우선 감미롭기만 하다. 경기가 좋아지고, 수많은 이들이 '묻지마 투자'에 올인, 대박을 노린다. 하지만, 환상은 사라지게 돼 있고 몰락의 순간, 가격은 폭락하고 파산이 우후죽순처럼 잇따른다. 이른바 버블 붕괴다.

버블의 시초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사재기 열풍에서 비롯됐다. 1970년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급습했다. 1974년 원자재와 석유, 1980년 일본과 부동산, 1990년대 아시아 화폐, 2008년 구조화 상품 등, 그야말로 세계경제는 버블 그 자체라 할 수 있겠다.

버블은 물리학적으로도 두 얼굴이다. 내가 이용할 땐 효과적이지만, 내가 당했을 땐 치명적이다.

'버블제트(Bubble Jet)효과'만 해도 그렇다. 수중에서 터진 폭탄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이 수면으로 치솟으면서 형성된 물기둥이 선박 등 구조물을 일시에 파괴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다. 선박 해체는 물론, 터널공사, 교량 파괴, 건물 해체 등에 쓰이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버블제트'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함미 인양 이후 공개된 절단면을 봤을 때 목표물에 닿지 않은 채 수중에서 폭발해 버블제트를 일으키면서 충격을 주는 감응식 어뢰에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침몰 원인이 무엇이든 '천안함 발 버블제트'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6자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로 6·2 서울시장 선거를 낙관하던 민주당엔 북풍 경계령이 내려졌다. 물방울이 참으로 무섭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지리적 표시제' 활용으로 수산업 살리기 나서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 수산업 선진화는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적 표시제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수산물은 완도전복, 벌교꼬막, 기장 다시마 등 일부 상품이 등록됐을 뿐이다.

수산물은 농산물이나 가공상품과 달리 지역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통영굴처럼 생산, 유통의 산업화와 대형화가 진행된 수산물도 아직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못 받고 있다. 등록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수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직접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은 물론 어민 단체와 어업관련 행정기관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천적곤충 상당수가 외래종… 생태계 파괴 우려

친환경 농업은 농약을 쓰지 않고 대신 병충해를 잡는 천적곤충 농법도 많이 활용한다. 그런데 이 천적곤충의 상당수가 외래종으로 자칫 잘못하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농업단체에서는 항상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 지구 온난화는 물론, 우리나라 기후도 점점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천적곤충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우리 농촌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착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늘려 육성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천적곤충 분야라고 본다. 정말 언젠가는 농약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아울러 천적곤충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건 외화 획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A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